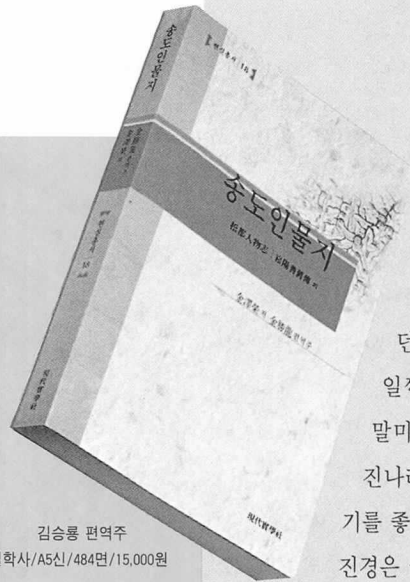


“고향이 그리울 때 머리맡에 두고 보리라”

김택영의 《송도인물지》를 읽고

박완서 | 소설가

“김택영의 문장은 송도 인물들의 묘사에서 살아 숨쉬다. 나는 《송도인물지》를 보며 마치 그 시대를 산 것 같은 시간여행을 하며, 송도의 냇을 마시는 기분이 됐다. 꼭 그곳에 가지 않더라도 얼이 숨쉬고 정신이 죽지 않고 살아 내 속에 살아 있는 느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장의 힘, 글의 힘이 아니겠는가.”



김승룡 편역주
현대실학사/A5신/484면/15,000원

서평을 해 달라는 부탁 때문에 읽게 된 것이지만 《송도인물지》라는 제목에 끌리지 않았다면 그런 부탁을 들어줄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아는 것이 좁아 김택영이란 학자에 대해선 처음 들어봤다. 가벼운 책이 많이 팔리고 판을 치는 세상에도 젊은 학자들이 날을 새우며 학문을 닦아 창고에 묻혀 있을 보석을 캐내 빛을 보이는 일이야말로 가치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이 책을 읽고 감탄과 칭찬의 말을 아끼고 싶지 않았다. 이 책을 통해 구한말의 개성 출신 학자이고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였던, 그리고 애국 문화 운동가였던 김택영 선생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나에게 큰 행운이다. 《송도인물지》는 김택영 선생의 《송양기구전》 등의 송도 인물전을 젊은 학자 김승룡이 집대성하고 현대어로 편역한 책인데, 역자 아버지의 고향이 개풍군 청교면이라는 것도 나에게겐 신기한 인연처럼 느껴진다. 내 고향 또한 리(里)만 다를 뿐 개풍군 청교면 아니던가.

귀감 될 만한 살아있는 문장 돋보여

책의 앞부분에는 김택영 선생이 《송양기구전》을 낼 당시의 서문과 발문 등이 실려 있는데, 이 부분을 읽으며 책이 살아 숨쉬는 것을 느꼈다. 김택영 선생이 이 책을 낼 당시의 시대상황이 나라의 존엄을 위해 외적에게 굴복하지 않는 애국심을 고취해야 할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역사인

물전을 통해 허물어져가는 문화 전통과 의식을 환기시키려 했다. 특히나 이견장이 쓴 발문과 이응익이 김택영의 문장을 묘사한 발문은 여러번 읽어도 그 울림이 와 닿는다.

“이 책의 문장은 전아하고 알차면서도 성글고 투박함이 있고, 간결하고 촉급하면서도 유장함이 있으며, 간곡하게 애쓰면서도 부드럽게 펼쳐짐이 있고, 평이하고 곧바르면서도 우뚝하고 기이함이 있다. ... 그런데 우림(김택영)은 본래 기구(耆舊) 자신들의 울분을 풀려고 한 것인데, 자신의 울분도 숨길 수 없었다. 나의 벗 우림으로 하여금 그 울분을 숨길 수 없도록 만든 이가 누구인가? 아아!”

“이 책의 체제는 정사를 본뵈오되 그 실상은 달라서 표창은 있으나 징계는 없다.”

판본이 다른 발문만 봐도 이 책이 살아 숨쉬는 걸 느낀다. 김택영의 문장은 송도 인물들의 묘사에서 살아 숨쉬다. 나는 《송도인물지》를 보며 마치 그 시대를 산 것 같은 시간여행을 하며, 송도의 냇을 마시는 기분이 됐다. 내가 꼭 그곳에 가지 않더라도 얼이 숨쉬고 정신이 죽지 않고 살아 내 속에 살아 있는 느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장의 힘, 글의 힘이 아니겠는가.

정몽주나 이색에 대한 논평 또한 간결하고 뛰어난지만, 우리가 한석봉으로 알고 있는 한 호에 대한 논평은 어떠한가.

“예로부터 글씨로 이름난 자는 어떻게 규정했

던가? 가장 능력있는 자는 일찍이 인품의 고상함으로 말미암지 않은 적이 없었다. 진나라 왕희지는 공허한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당나라 안진경은 굳센 절개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제 그 글씨를 보건대 과연 어떠한가? 한 호의 글씨는 천하사람들이 전하지만 그의 인품이 훌륭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 아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상세하게 서술한다.”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인정깊은 논평

논평은 범접할 수 없는 위외까지 느껴진다. <효우전>에 전하는 아름다운 우애의 이야기는 요즘 같은 세상에 남다른 감회와 감동을 준다. <가자·명원전>(歌者·名媛傳)에 전하는 ‘황진’ 편에 나오는 이야기와 시도 아름답거니와 “세상에서 전하는 황진의 다른 일들은 모두 터무니없는 것이기에 여기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학자다움에는 숙연해지기까지 한다. <정렬전>(貞烈傳)에 나온 열녀 이야기는 남편의 원수를 갚는 개성 여인의 의로움과 용감함을 기리고 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인정깊은 논평이 사실성을 더해준다.

마침내 역자 후기에 이르러 무릎을 치고 감탄하게 된다. 아, 이 문장이 그 문장을 알아봤구나. 두 문장의 만남의 빛남은 곧 두 인품의 만남의 아름다움이 아니던가. 내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느슨해질 때, 또 내 진정 고향이 그리울 때 머리맡에 이 책을 두고 보리라. ●